

나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저조

724명 중 156명 21.5%...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이주율 38.9%...인원 7187명 중 2802명만 가족 동반

올 상반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율)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 인원은 2771명이었고, 이 중 645명을 뽑아 채용률 23.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구혁신도시가 채용의무 대상 인원 121명 중 50명을 선발해 41.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 30.9%, 충북

28.1%, 부산 26.4%, 경북 23.9%, 울산 23.1%, 광주·전남 21.5% 등의 순이었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은 올 상반기 채용의무 대상 인원 724명 중 156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신규채용 때 지역인재를 18% 이상 선발해야 한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세종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모두 19% 이상이었다. 반면에 세종은 대상 인원이 14명이었으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증가했고, 단신 이주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족동반 이주 인원은 전체 3만8384명 중 35.9%인 1만37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주율 32.5%에서 3.4%포인트 증가했다. 전북혁신도시가 이전 인원 4972명 중 1514명(48.9%)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 48%, 부산 47.7%, 광주·전남 38.9%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시는 지난 6월말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7187명이었는데 이 중 2802명만이 가족을 동반했고 2583명은 홀로 이주했고, 1776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신 이주 인원은 전국 이전 인원 중 33.4%인 1만2847명으로, 지난해 37.8%에서 4.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현 의원은 “올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률은 의무채용 기준인 18%를 훌쩍 뛰어넘었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소폭이지만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2.0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대형 트럭, 국내 첫 자율주행 성공 40t급 엑시언트 의왕~인천 40km

현대차가 화물 운송용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트레일러가 연결된 대형트럭이 국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 21일 트레일러와 결합한 최대중량 40t급 엑시언트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의왕~인천 간 고속도로 약 40km 구간에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트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으로, 5단계로 분류된 자율주행 레벨 중 중간 단계다.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수준으로, 특정 위험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트럭은 영동고속도로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의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과 연계한 차선 유지 ▲지능형 차선 변경 기능 ▲앞 차량 차선 변경 인식 대응 ▲도로 정체 상황에 따른 완전 정지·출발 ▲터널 통과(2개) 등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선보였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현대차가 운송용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하는데 성공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트럭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

다만, 영동고속도로에서 제2 경인고속

도로로 갈아타는 서창JC(분기점) 구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다. 자율주행 트럭은 최고 제한속도인

90km/h를 준수하며 약 1시간 동안 4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성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입 70명 채용 ... 50명 지역 인재 우선

50주년 기념 역대 최대...내달 3일 원서접수

채용설명회 23일 조선대·24일 전남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신입 행원 70명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9월 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신입행원 채용을 위해 기존에 대학추천제로 모집했던 방식을 인터넷공채로 변경하고 필기시험(NCS, 상식)을 도입했다. 채용 인원은 7급 중견(4년제 대학 졸업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행원 60명, 7

급 초급(고졸 이상·2019년 2월 졸업예정자)행원 10명이다. 또한, 이번 신입행원 채용은 지역인재와 지역 외 인재, IT(전산직)분야로 나뉘었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들을 위해 전체 채용 인원의 70% 이상을 우리 지역에 할당 선발해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이상자를 대상으로 7급 초급 행원을 채용해 은행 취업문 개

방 및 채용기회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은행 조계준 인사지원부장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근 5년 대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며 “외부면접관이 참여토록 하는 등 채용 과정 대부분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본격적인 채용에 앞서 23일에는 조선대학교, 24일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3.33 (+3.27) ▲ 금리(국고채 3년) 1.96 (+0.04)
▲ 코스닥 785.95 (-1.20) ▲ 환율(USD) 1118.90 (+0.50)

한전, 전력 中企 해외 진출 돕는다

KEPCO 수출지원 포털 오픈...정보 제공·유망기업 발굴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KEPCO 수출지원포털’을 21일 오픈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전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엔 선보인 ‘KEPCO 수출지원포털’은 국내 민·관 수출전문기관이 생산한 해외 전력기자재 시장동향과 전 세계의 전력사업 입찰정보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한다. 이외에 나라별 전력생산량과 같은 다양한 전력지표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고, 전력기자재 83개 품목에 대한 165개국의 수출입 최신 통계도 볼 수 있다. 특히 전력산업 분야의 잠재고객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제품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다. ‘e마켓플레이스’에는 한전 우

수협력기업인 KTP(KEPCO Trusted Partner) 123개 기업의 제품이 1차로 등록돼 있으며, 유망 기업과 제품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촉진회와 같은 해외교류 행사 시 포털을 적극 알려 국내 전력기자재 B2B 시장의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해외진출과 수출에 관심 있는 에너지 신산업분야 기업 관계자들은 한전 홈페이지(http://home.kepcoco.net) 메인화면을 통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인터넷주소(http://export.kepcoco.co.kr:18080/main.do)를 직접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오픈 기념으로 ‘사용후기 등록’, ‘방문자 무작위 추첨’ 등의 이벤트를 9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세관, 광산업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권역내 업체 대상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광(光)산업 및 권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납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에는 월별납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자동간이 환급, 담보제공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체납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세관장에게 미리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고도 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직접 발굴해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세정지원은 우선 수입시 납

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도 록 한다(월별납부). 수입시 납부 후 세무서 확정신고시에 정산하던 수입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 해 사후 정산토록 할 계획이다(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또한, 민원인이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급 신청토록 함으로써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며(자동간이 환급), 재수출면세 통관, 납부기한 연장 등 담보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면제토록 했다.(담보특례).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노사 올 임단협 잠정 합의

기아차 노사가 22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는 이날 경기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 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이다. 주요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종업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de.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1566-1394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